지역 소식통

부안군, 청년 · 신중년 취업지원 참여기업 모집

부안군(군수 권익현)이 청년과 신중년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오는 27일까지 '2023년 청년·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미취업 청년(만18세~39세) 14명과 신중년(만40세~69세) 10명 등 총 24명에게 정규직으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고용 기업에는 1인당 월 70만원의 인건비를 12개월간 지원한다.

또한 사업에 참여한 청년에게는 2년간 최대 300만원, 신중년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기간별(6개월차, 12개월차, 24개월차)로 지급해 청년·신중년 취업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고용 안정화에 힘쓸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의회, 2023년 첫 임시회 폐회

부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 2023년 첫 임시회를 지난 1월 9부터 1월 18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 군정에 관한 보고를 통해 각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청취하고, 주요정책의 추진상황 및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조례안 6건, 건의안 등을 심의 의결하였다.

회기 마지막날인 제8차 본회의에서는 박태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을대교(국도 77호선 부안 변산~고창 해리) 4차선 확장 및 조기착공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조속히 착공하여 명품 관광형 교량이 건설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김광수 의장은 "미래 100년 지속가능한 부안 실현을 위해 맡은 정책에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길 바란다"며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혁신하고 도전하여 새로운 부안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설 명절 종합대책 추진

정읍시, 21~24일까지 종합상황실 운영… 시민 불편 최소화

정읍시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연휴 동안 종합 상황반을 운영해 시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비상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총괄지휘반을 비롯한 재난재해, 물가, 교통, 생활환경, 상하수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총 7개 분야 일 13명으로 구성된 대책반을 편성했다.

시는 주요 시설물 등 안전 점검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가축전염병 상황실을 운영해 AI·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한 특별 방역 태세를 구축하고, 추가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높아진 물가에 따른 가계 부담 완화와 민생경제 활성화, 지역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대책반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성수품 가격 동향을 수시 점검하고, 원산지표기, 부당거래 행위 등을 지도·단속하며,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을 전개해 지역경제와 전통시장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명절 연휴 귀성객 등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교통대책반을 운영한다. 터미널과 샘고을시장 등 상습 정체 지점과 병목 지점에 교통지도 단속 요원을 특별 배치하며, 연휴 기간 중 주차 걱정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51개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로시설물, 노상 적치물, 불법 광고물, 도시공원 등을 정비, 생활환경 대책반을 운영해 연휴 기간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상하수도대책반을 편성해 하수도 시설물 전반을 점검하고, 상하수도 관련 민원과 긴급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통시장 할인 행사 '풍성'

정읍시, 물품구매 시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차등 지급

최근 물가상승과 내수경기 악화 등으로 전통시장의 방문객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정읍지역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읍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인 '전통시장 소비 쿠폰(온누리상품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하는 '전통시장 소비 쿠폰 지원사업'은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의 체감물가 인하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소비 쿠폰으로 차등 지급해 전통시장의 소비 부진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가계지출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이번 사업비는 총 5천만원이 투입되며 지역 전통시장인 샘고을시장, 신태인시장, 연지시장을 대상으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행사 기간 중 당일 합산금액 3만원 이상 6만원 미만 구매 시 5천원, 6만원 이상 11만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11만원 이상 구매 시 1만5천원권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준다.

상품권 환급장소는 샘고을시장 내 고객 쉼터와 신태인시장 1층 상인회 사무실, 연지시장 번영회 사무실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향사랑기부제 줄이어… 명절 전후 장점 알릴 기회

고창군, 16일 기준 258명 4900여만원… 기부자의 87% 답례품 106건 주문

고창군을 사랑하는 기부행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출향인들의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4일 강원도 횡성군 김선심씨가 최고 금액인 500만원을, 2일에는 상하면 동촌마을이 고향인 경기도 시흥시 박인수씨가 500만원을 각각 기부금으로 쾌척했다.

현재까지 크고 작은 금액들이 모여 모두 258명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 누적 기부금 4900만원이 모금됐다. 기부내역을 보면 기부자의 87%가 10만원을 기부했고, 답례품은 3만원대 가격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답례품을 선택한 이들 중 많은 수가 고창군에서 준비한 답례품이 마음에 들어 기부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31개 품목에 이르는 다양하고 품질 좋은 답례품 제공이 큰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창군은 설 기간 거리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홍보 팸플릿을 배부하는 등 지역 주민에게도 기부제를 홍보하고 있다.

또 송파구와 마포구 등 자매결연도시 직거래 장터를 방문하여 출향인뿐만 아니라 자매결연도시 구민들에게도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렸다.

특히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 친선대사(오종남 서울대 명예주임교수, 박근형 배우, 장사익 소리꾼) 홍보대사(배우 조재윤, 김규리, 가수 김태연, 김현, 미술사 박종원)등 고창 출신 및 지역에 관심이 많은 연예인들도 고향사랑기부제에 중요성을 피력하면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첫걸음을 시작한 고창 고향사랑기부제가 금액면에서나 건수면에서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순항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유기농 황토 쌀 전국 이마트 매장 첫 출하

고창군이 고수면 한결영농조합법인 친환경 가공센터에서 '유기농 황토 쌀'을 전국 이마트 매장으로 보내는 첫 출하식을 가졌다.

이날 출하식에는 박종대 한결영농조합법인대표, 유재관 고창군친환경연합회장, 김용태 송암단지장, 이광호 여곡단지장, 유재준 석탄단지장, 강부덕 용두단지장 등이 참석했다.

고창 유기농 황토 쌀은 수광 품종으로 게르마늄 성분이 풍부하고 해풍을 맞고 자라서 밥맛이 좋아 소비자들로부터 최고의 쌀로 인정받고 있다.

유기농 황토 쌀 30톤(3000포/10kg)을 시작으로 연간 360톤을 납품할 계획이며, 1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 안정적인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될 예정이다. 출하된 쌀은 이마트 물류센터 3개소를 통해 전국 137개 매장에서 판매된다.

출하식에 참석한 친환경 생산자단체는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고 친환경 가공센터에서는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한 소비자가 신뢰하는 전국 최고의 쌀로 자리매김 하자"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설맞이 장보기 행사 전통시장 활력소 역할 '톡톡'

정읍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에 나섰다.

이학수 시장을 비롯한 정읍시 공무원들은 18일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샘고을시장과 연지시장, 신태인 시장을 방문해 설 명절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장보기 행사는 고물가 등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고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과 대형마트 등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로·격려하고 시장을 방문한 고객들과 새해 덕담을 나눴다.

이어 미리 구매한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역 농산물과 추석 명절에 사용할 제수용품, 생필품 등을 구매하는 등 시장 상인들을 살리는 착한 소비 운동에 나섰다.

특히 장보기 행사를 통해 구매한 물품들은 지역 노인시설 3개소와 장애인시설 2개소,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 2세대에 전달했다.

시는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를 전통시장 활성화 기간으로 정하고 온누리 상품권과 정읍사랑 상품권을 활용한 장보기 운동 행사를 전개하고 있다.

장보기 행사에는 정읍시 전 공직자들을 비롯해 정읍시새마을회와 여성단체협의회 등 유관 단체가 참여한다.

이학수 시장은 "민족 대명절을 앞두고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넉넉한 인심과 고향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전통시장을 이용해 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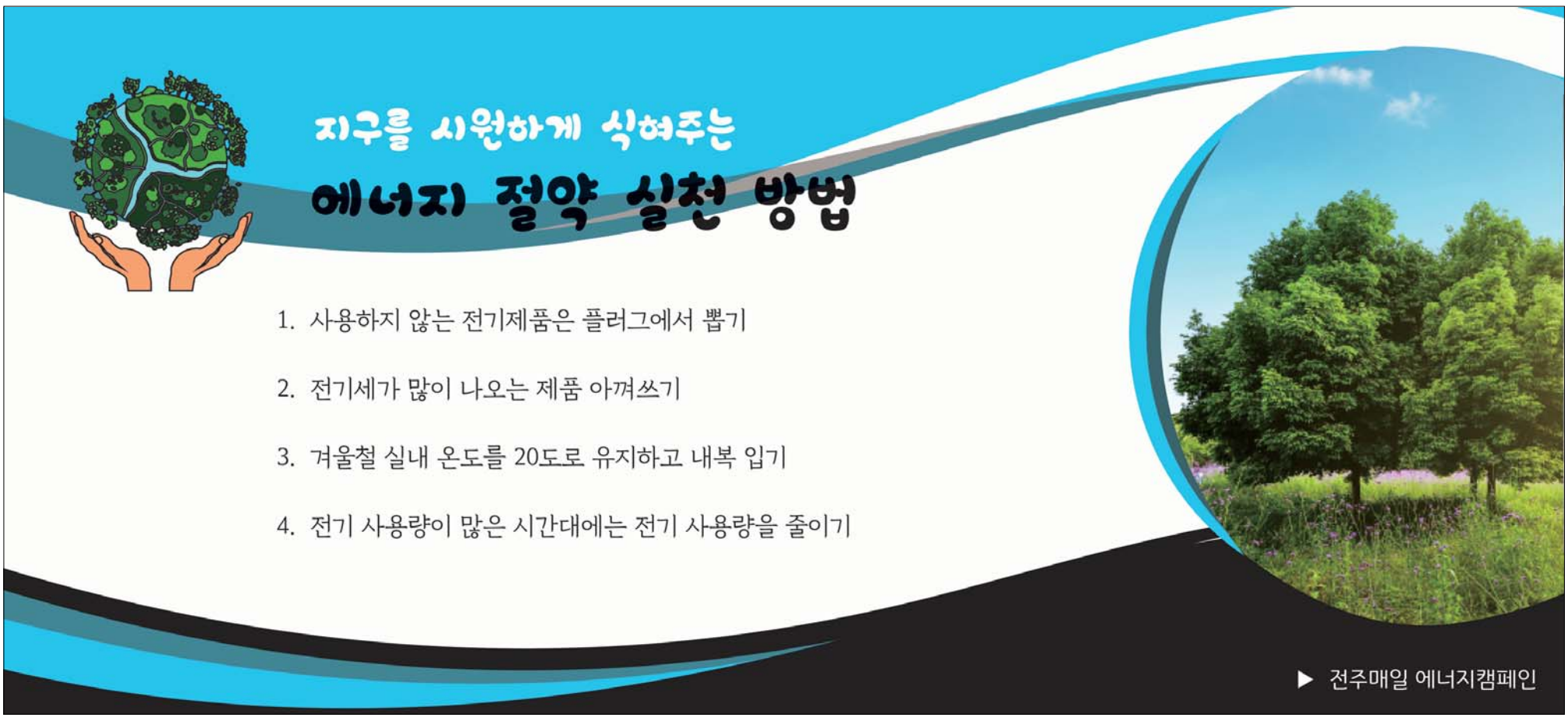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단 25명 선발 위촉

부안군이 민선8기 공약사항에 대한 민주적이고 투명한 점검과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 25명을 선발하고 위촉식을 가졌다.

군은 지난 공약이행평가단 임기가 2022년 11월 만료됨에 따라 새롭게 공개모집을 거쳐 25명 규모로 선발했으며 2024년 11월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날 위촉식에서 "공약이행평가단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로 지난 민선7기 4년 동안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실시하는 약속대상, 공약실천계획평가 대상, 공약이행평가 대상 등 모든 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며 "민선8기에도 재선군수라는 영광보다는 그에 따른 무거운 책임감으로 공약실천계획서에 적힌 부안군 비전을 하나하나 실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9월까지 민선8기 권익현 군수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계획 및 이행가능 여부, 재정확보 계획 등을 부서별로 검토를 마쳤으며 80개 공약을 최종 확정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부안=김석진 기자